

보도시점 2026. 7. 29.(수) 11:00
2026. 7. 30.(목) 조간

배포 2026. 7. 29.(수) 06:00

여름철 축사 주변 진드기 주의! 예방 수칙 준수해야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초지 작업 시 긴 작업복 착용, 기피제 사용 및 작업 후 증상 확인
- 검역본부, 전국 축산농가 주변 진드기 및 매개 병원체 지속 감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농가에 예방 수칙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는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작은소참진드기를 포함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숲, 풀밭 등의 야외 환경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뿐만 아니라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세균성·원충성 감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사람과 가축은 고열, 오한, 근육통과 함께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국내 SFTS 발생('13~'24): 환자 2,065명 / 사망 381명, 치명률 18.5%(질병관리청, 누적 기준)

특히, 축사 주변은 초지나 풀숲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 주변 풀숲에 서식하던 진드기는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해 흡혈하므로,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 농가는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예방 수칙으로 우선 ①작업 전에는 긴 소매의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한 후 소매와 바짓단을 단단히 여며 작업 시 피부 노출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작업 중 휴식할 때는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작업 후에는 몸과 작업복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사 주변의 풀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가축의 진드기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육환경을 관리하는 한편, 야외 작업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전국 축산농가 주변 7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를 채집·검사하여 매개 병원체의 분포를 연중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채집·검사한 참진드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여름철에 접어든 만큼 검역본부는 권역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국내 참진드기 SFTS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현황('23~'25): ('23) 28건, ('24) 32건, ('25) 5건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국 축산농가 주변의 참진드기와 매개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예방 및 방역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축산농가를 비롯한 국민께서는 야외 활동과 작업 시 진드기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축산농가 주변 참진드기 채집 장면 및 참진드기 사진
2. 진드기 예방 수칙 및 대처 요령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조윤상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이향심 (054-912-0743)



축산농가 주변 참진드기 채집 장면

작은소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주요 참진드기 발육 과정별 사진

□ 사육동물·반려동물 관리 및 예방 수칙

- (작업 전) 긴 소매의 작업복과 장화 착용 후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구제제) 사용
 - (사육동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이버멕틴, 아미트라즈, 피프로닐 등 성분을 포함한 구제제 주기적 사용
 - (반려동물) 야외 활동 시 동물 진드기 기피제 사용
- (작업 중) 휴식 시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고 야생동물과 그 체액, 배설물 등과 접촉 자제
- (작업 후) 몸과 작업복, 장화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작업복은 세탁하고 손발을 비누로 씻거나 샤워하기
- (방목지 및 축사 관리) 주기적으로 주변 풀 정리하고 축사 소독 실시

□ 진드기 발견 및 의심 증상 시 대처

- (진드기 발견 시 대처) 동물의 피부에 부착된 경우 가급적 동물병원에서 제거하되, 직접 제거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핀셋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에 최대한 가깝게 진드기를 잡고 일정 압력을 가해 수직으로 천천히 들어 올림
-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처) 동물이 원인 불명의 고열, 식욕부진, 구토, 설사, 활동성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동물병원에서 진료